

도시혁신연구회 북가좌2동 희망지사업 주민간담회 개요 및 회의록

- 일 시 : 2019. 8. 21.(수) 16:00~17:30
- 장 소 : 마을사랑방 해담이(서대문구 응암로 116-5, 2층)
- 참 석 자 : 도시혁신연구회 소속 구의원(차승연, 주이삭, 이경선, 이종석 의원), 희망지사업 참여주민, 유재무 주민자치위원장, 남민숙 통장협의회장, 탁현배 서대문구공공급식지원센터장, 희망지사업 지원단체 관계자(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 김용오 북가좌2동장 등 40여명
- 진행순서
 1. 주요 참석자 소개
 2. 간담회 개최취지 및 순서설명 : 도시혁신연구회 간사 주이삭 의원
 3. 북가좌2동 희망지사업 경과보고 : 주민대표
 4. 자유토론
- 간담회 내용(회의록)
 - ▶ 북가좌2동 희망지사업 경과보고 : 주민대표
2019년 1월부터 현 위치의 현장거점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북가좌2동은 인구가 3만4천여명으로 서대문구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나,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없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단합과 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 해담이 플리마켓, 서대문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전주로컬푸드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가좌2동의 특징은 에너지자립마을 3년을 졸업하고 희망지사업 신청했다는 것이며, 분과별 주민모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서대문구공공급식지원센터장 : 전주시와 마을을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농부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공동체성이 두드러지는 마을모습에 놀랐습니다.
 - ▶ 도시재생과장 : 서울시에서는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을 선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가좌2동은 지역모임이 탄탄하고 동주민센터 자치위원회, 통반장협의회, 마을활동가 등과의 협력이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주민협동조합 출범,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개최 등 객관적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자립마을 모임 이후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비전이 필요하고,

관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와 협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 주민자치위원장 : 농부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주이삭 의원 :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주민모임공간이 부족한 것이 느껴집니다. 희망지사업구역 내 활용할 만한 주민공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 : 현재 북가좌2동주민센터는 공간도 협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도 없어 증산동, 신사동, 남가좌동 등 인근의 주민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원단체 : 노인인구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이 없고, 아이들이 많아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생협매장도 없습니다. 전주시와 함께하고 있는 농부장터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매우 크며 매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주민대표 :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을 원하는 어르신이 현장거점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본인부담이 있더라도 주거시설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선 의원 : 홍제1동의 경우를 보면 오래된 노후주택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거시설 개선사업 시 사전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 차승연 의원 :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가좌2동 커뮤니티센터 시설에 대해 관리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조성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주민 : 가장 절실한 요구는 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 주민대표 : 버스정류장을 막고 마을축제를 하고 있는데 불광천변에 행사할 수 있는 무대(조명, 스탠드 시설 포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광천의 관할이 은평구와 서대문구로 나뉘어져 있어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가좌2동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불광천 청소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광천 관리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차승연 의원 : 북가좌2동 희망지사업은 먹거리, 돌봄, 에너지라는 3가지 방향을 설정했는데, 먹거리와 에너지분야는 어느 정도 계획과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주민대표 :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주민의 사업의지도 높으나, 사업을 추진할만한 사업비와 공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 지역이 발전하려면 부족한 공공공간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공공조리원 같은 외부재원이 지역에 유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단체 : 현재 희망지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와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준비위원회 등을 조직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선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역의 낙후성면에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만 풍부한 인적자원과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석 의원 : 도시혁신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북가좌2동 주민의 역량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대표 :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대문구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간담회 종료 후 관내 풍원시장과 북가좌2동 커뮤니티센터 시설 견학 실시

○ 행사사진

